

성인들을 위한 예배교육의 내용과 방법

이 석 철
〈기독교교육 교수〉
chan3@kbtus.ac.kr

들어가는 말: 예배교육의 필요성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매우 중요하다. 예배는 신자 개인뿐만 아니라 신앙공동체 차원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따라서 예배의 생활을 잘 영위하도록 신자 개인과 공동체를 돕는 일은 지도자들의 중요한 책임과 사역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현실은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예배참석을 독려하는 것에 치우쳐 왔다. 예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의미 있는 예배 생활을 위한 교육에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다음의 진단은 이런 현실에 대해 잘 말해 주고 있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 없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설에는 많은 관심을 갖지만 예배하는 성도들을 위한 예배교육은 거의 없습니다. 올바른 예배에 대한 가르침이

없을 때 본질이 아닌 형식에 얽매이게 됩니다. 자신이 경험한 예배가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¹⁾

강용원은 목회 사역에서 예배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목회자는 계속하여 예배의 의미를 교육해야 한다. 예배에 대한 교육은 회중들로 하여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자발적이며 능동적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²⁾ 교회사역 현장에서 예배교육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독교 학계의 전문성 있는 연구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필요에 근거하여, 본 연구자는 성경적인 예배의 원리를 토대로 성인 예배교육의 주요 내용을 고찰하고 성인 예배교육의 방법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연구를 실행하였다.

I. 성인 예배교육의 내용

1. 예배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예배교육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예배의 중요성에 관한 것이다.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에서 신앙의 대상에 대한 예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예배는 매우 광범위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에 대한 경외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또는 하나님을 칭송하고 높이는 찬양의 행위로도 묘사하고 있다. 우리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 하나님의

1) 온누리 예배사역본부, 「예배학교」(서울: 두란노서원, 2014), 6.

2) 강용원, 「기독교교육의 과제와 전망」(서울: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04), 239.

창조 목적, 구원의 목적,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는 점에서 교육할 수 있다.

1) 창조의 목적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지극히 기뻐하시는 것으로, 이것은 그의 모든 창조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경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구약성경은 하늘의 천사와 우주와 자연계, 그리고 모든 인간을 향해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시 148:13)라고 말하고 있다. 신약성경도 만물은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서,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으며(골 1:16),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롬 9:5)이라고 선언한다. 그리고 창조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피조물은, 계시록이 보여주듯이, 영원한 미래까지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계 5:13) 그렇다면 피조물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만물의 영장’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그를 공경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일이다. 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모든 사람의 본분”(전 12:13)인 것이다.

2) 구원의 목적

이처럼 만물의 창조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인간

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죄악의 길을 선택하고 “사람의 본분”을 저버렸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는 ‘새 창조’의 역사를 펼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목적도 첫 창조와 동일한 것임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 예컨대,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자들을 가리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로 일컬으시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사 43:7, 21)고 말씀하셨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 148:14)라고 기록돼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시 29:2)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신약성경에서도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고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엡 1:4-14).

3) 교회의 기본적인 기능

예배가 그리스도인에게 이처럼 중요하다면, 그들의 공동체인 교회에게도 예배가 당연히 중요할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의 모임으로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교회의 일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것이다.³⁾ Young도 교회의 일차적인 일은 다른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기독교적인 성장, 교육, 전

3) Franklin M. Segler, *A Theology of Church and Ministry* (Nashville: Broadman Press, 1960), 19.

도, 선교가 참된 예배를 토대로 해서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함으로써 교회의 사역에서 예배의 우선적인 중요성을 강조했다.⁴⁾

교회에 있어서 예배는 주로 회중 예배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전체 회중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로서 중요한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8:20)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공동체성은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필수적이고 본래적인 요소이다. 또한 공동의 예배경험은 교회를 하나의 건강한 신앙공동체로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물론 예배는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건강한 신앙공동체로서의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서는 안 된다. 다만 우리는 공동체 차원의 예배경험이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관점에서 예배의 중요성을 논하는 것이다. 예컨대, Macchia는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열 가지 비결 중의 하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꼽았다.⁵⁾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Gaddy가 말한 다음의 내용도 예배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다: “예배는 신앙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여 교정과 개혁, 그리고 방향제시를 하실 수 있는 자리이다. 예배 없이는 교회가 위협에 처하게 된다. 정규적인 공동체 예배의 경험을 떠나서는 교회가 완전히 인간적인 친교 모임이 되어버리고, 그 결과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자신들의 힘으로 하려고 시도한다.”⁶⁾

4) J. Terry, Young, *The Church—Alive and Growing!* (Nashville: Broadman Press, 1978), 85.

5) Stephen A. Macchia,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10가지 비결」, 김일우 역 (서울: 아가페출판사, 2000), 71-104.

6) C. Welton Gaddy, *The Gift of Worship* (Nashville: Broadman Press, 1992), 216.

2. 예배의 의미에 관한 교육

예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팽배해 있는 오늘날, 예배의 올바른 의미에 관한 교육은 매우 절실하게 요구된다. Martin도 예배가 오해와 오용에 노출돼 있다고 진단하면서, 만연돼 있는 그릇된 인식으로부터 이 중요한 용어를 ‘구출해 내어’ 그것의 순전한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⁷⁾ 올바른 예배의 의미를 이해하는 핵심은 예배란 본질적으로 개인적이며 내면적인 행위라는 점이다. 예배는 함께 하는 사람들의 유무에 상관없이 각각의 예배자가 드러야 하는 것이다. 또한 예배는 장소나 형식 등의 외적인 요소보다 마음의 상태와 태도가 더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오늘날의 많은 예배행위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예배교육이 필요하다.

1) 개인적 행위로서의 예배

일반적인 예배 인식의 문제점으로 Martin은 ‘과도한 익숙함’(overfamiliarity)에서 오는 위험성을 지적한다. 일정하게 돌아가는 교회 모임들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단단히 연결돼 있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교회 건물이나 부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교적 또는 집단적 행사가 곧 예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⁸⁾ 이는 예배를 일정한 장소(주로 교회당)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드리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예배는 교회당뿐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예배는 얼마든지 혼자서도

7) Ralph P. Martin, “The Purpose and Meaning of Worship,” in James D. Berkely, ed., *Leadership Handbook of Practical Theology, vol. 1: Word & Worship*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 House, 1992), 139.

8) Ibid.

드릴 수 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예배가 교회당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행하는 형태라 할지라도 이는 여러 예배종류 중 하나라는 점을 깨닫게 해야 한다. 신앙공동체인 교회에 있어서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유일한 예배가 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야 할 또 하나의 예배 형태는 이와 대조되는 ‘개인예배’이다. 이는 각 사람의 사적(私的, private) 공간에서 개인적(individual)으로 드리는 예배로, 공적인(公的, public)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으로(共同, corporate) 드리는 ‘회중예배’와 대조되는 것이다.

이러한 분류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별로 새로울 것도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회중 예배로서의 예배개념만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인데 중요하게 강조해야 할 점은 본질적으로 예배는 각 사람이 드리는 ‘개인적’ 신앙행위라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한다 해도 결국은 각 개인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다. 공동체 차원에서 드리는 회중 예배는 참여자 각 개인이 의미 있는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집단예배’(group worship)는 참여하는 각 개인에게서 ‘먼저’(first) 예배가 일어날 때에만 참된 예배가 된다.⁹⁾ Jenson과 Stevens도 오늘날 예배에 대한 오해가 생긴 이유 중 하나가 ‘개인적인 예배의 부족’이라고 진단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만약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으며 예배도 드리지 않는다면 교회에서의 대예배(공중 예배)가 의미 있을 수가 없다.”¹⁰⁾

9) Young, *The Church—Alive and Growing!*, 86.

10) Ron Jenson and Jim Stevens, 「생동하는 교회 성장」, 금병달 역 (서울: 순 출판사,

이상의 논의는 교회당 중심의 회중예배 개념이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현실을 올바로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 있어서 적절한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서 강조했듯이, 기독교 신앙생활의 필수적 요소인 공동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함께 행하는 회중예배를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 Segler는 회중의 ‘공동예배’(corporate worship)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끊임없이 드러지는 예배의 ‘그림자와 형상’(a shadow and image)이라고 말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¹¹⁾ 실로 회중 예배는 ‘1인칭 복수’(first-person-plural) 활동으로, 한 신앙공동체가 아니었다면 매우 이질적이었을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듣고, 함께 헌신한다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이다.¹²⁾ Martin은 개인적 차원의 신앙생활을 초월하는 공중예배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그리스도인의 개인적인 예배와 가정예배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우리는 공동예배(corporate worship)로 드리는 공중예배(public worship)를 행한다. 후자의 측면에서 예배의 의미는 공동체적 활동(communal enterprise)이며, 이는 개인적으로 실천하는 기도, 묵상, 그리고 성경연구를 합쳐놓은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다. 공중예배의 이 부가적인 차원은 예배를 위해 모인 회중(congregation)으로 인해 풍성해지는 것이다.... 교회 공동체의 예배는 “공동의 삶”(코이노니아)과 함께 발맞춰 나가는 것이며, 그 삶은 한 성령의 침례를 통해 한 몸으로 연합한 여러 개인들이 이룬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 흘러나가는 것이다.... 신약성경에 제시된 이상적 모습은 ‘예배 속의 교제’(fellowship-in-worship)이다.¹³⁾

1991), 48-9.

11) Segler, *A Theology of Church and Ministry*, 205.

12) “Worship Education: Meaning and Purpose, 5. Christian worship should be communal,” [온라인 자료], <https://network.crcna.org/worship/worship-education>, 2020년 10월 25일 접속.

13) Martin, “The Purpose and Meaning of Worship,” 146-7.

2) 내면적 행위로서의 예배

예배는 본질적으로 예배자 내면의 생각, 감정, 의지가 예배의 대상을 향해 표출되는 것이다. 따라서 마음 상태와 태도가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표출’의 의미도 꼭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 행동만이 아니고 비가시적 행동까지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자의 내면은 더욱더 중요하게 된다. Young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예배에 관한 오해 중 하나는 예배가 외면적인 것, 즉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예배는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것이다. 예배는 사람의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그것이 노래나 기도 등을 통해 외적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밖으로 나타나 보이는 것은 예배의 결과일 수 있으며 그것 자체가 예배는 아니다.”¹⁴⁾

일반적으로 예배를 한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행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사전적으로도 예배의 정의는 “신이나 부처와 같은 초월적 존재 앞에 경배하는 의식, 또는 그런 의식을 행함”¹⁵⁾이라고 되어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에게 예배는 내면적 행위가 아니라 어떤 모임이나 의식 또는 의례를 의미한다.¹⁶⁾ 송인규는 “지금까지 우리는 의식으로서의 예배만을 예배의 전부로 착각”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그런 현상은 지나친 ‘예배당 중심’의 예배인식의 결과라고 보았다.¹⁷⁾ 공중예배에서는 좋은 의례와 절차가 매우 중요하지만 밖으로 보이는 어떤 표현 그 자

14) Young, *The Church—Alive and Growing!*, 86.

15) “예배,” [온라인 자료]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pageSize=10&searchKey word=%EC%98%88%EB%B0%B0>, 2019년 9월 1일 접속.

16) 양명호, 「참으로 예배하고 싶다」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3), 10.

17) 송인규, 「예배당 중심의 기독교를 탈피하라」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1), 104.

체나 의식을 행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은 아니다. 외현적 행동을 하고 의식의 절차와 순서를 따라 참여하더라도 예배자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았다면 진정한 예배가 일어났다고 할 수는 없다. 양명호가 지적하듯이, 예배는 의식을 포함하지만 의식만을 행한다고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¹⁸⁾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행동이나 의례를 초월하는 차원의 예배 본질적 의미에 대해 잘 교육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데는 그런 의미를 잘 반영하는 예배의 정의를 가르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본 연구자는 예배를 ‘하나님에 대한 경외(敬畏)의 마음을 표하는 행위’라고 단순하게 정의한다. 앞서 논의했듯이,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며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영어에서도 예배를 ‘경외’의 의미인 ‘reverence’로 정의하고 있다. 예컨대, 예배를 ‘신적 존재나 초자연적 능력에 대해 표출하는 경외심’(reverence offered a divine being or supernatural power), 또는 ‘그러한 경외심을 표현하는 행위’(an act of expressing such reverence)¹⁹⁾로 예배를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경외한다’는 것은 매우 광범위한 개념으로 삶의 전반적인 태도를 아우르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을 ‘예를 갖추어 절하는’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경배(敬拜)’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곧 ‘예배(禮拜)’인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렇게 형식을 갖춰 표현하는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경

18) 양명호, 「참으로 예배하고 싶다」, 77.

19) “worship,” Merriam-Webster Dictionary, [온라인 사전] <https://www.merriam-webster.com/dictionary/worship>, 2020년 9월 10일 접속.

배(예배)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예배하는 것 외에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좋은 본을 보이며 살며 이타적인 사랑과 봉사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방법이다. 어떤 이는 이것을 ‘생활예배’나 ‘삶의 예배’로 명명하기도 하지만,²⁰⁾ 그것은 예배 본래의 뜻을 너무 확대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그보다는 예배자로서의 마땅한 생활, 또는 삶에서의 실천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Martin도 이것을 생활예배로 부르지 않고 ‘예배를 실제 삶에 연결하기’(Relating Worship to Real Life)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²¹⁾ 아무튼 우리가 예배의 본질적 의미에 대해 교육할 때 ‘예를 갖춰’ 어떤 의식이나 형식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차원이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경배’ 혹은 ‘예배’보다 더 크고 근본적인 것으로서의 ‘경외’의 개념을 이해시켜야 한다. 그리고 경외라는 것은 내면적 마음의 문제요 삶의 태도로서, 이것이 올바르게 담겨 있지 않은 예배의 행위는 무의미한 것임을 깨닫고 참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아무리 ‘경배’를 많이 해도 마음상태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마 15:9)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예배의 목적에 대한 교육

예배는 “성령 안에서 성자를 통해 성부이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²²⁾

20) 이명희, “예배의 종류와 실천,” 「백티스트뉴스」, 2013년 3월 15일, 7면.

21) Martin, “The Purpose and Meaning of Worship,” 147-8.

22) Teresa Berger, 「예배, 디지털 세상을 만나다」, 안선희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20), 287.

이다. 따라서 예배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한다. 물론 공동예배에서 사람들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심리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예배는 ‘하나님 중심적인’(theocentric) 것으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는 행위이다.²³⁾ ‘하나님을 향하는’ 것은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임을 뜻한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위하는’ 목적으로 예배가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많은 경우에 예배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하고’ 또한 다른 것을 ‘위하는’ 일이 되고 있다. 이것이 예배교육에 있어서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1)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되는 문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목적으로 한 수단으로서의 예배는 이상숭배”²⁴⁾라고 양명호는 선언한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표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런데 그 일을 잘해 보려고 하는 것이 지나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닌 ‘예배’를 위해 힘쓰는 잘못에 빠질 수 있다. 이는 ‘하나님의 자리에 예배를 얹혀 놓는 것’으로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다. 양명호의 선언에 비춰보면, 예배가 우리의 이상숭배가 되는 셈이다. 예배를 중요하게 강조하고 최선을 다하려는 좋은 의도에서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표현들도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예배를 섬긴다’거나 ‘예배에 목숨을 건다’는 등의 표현이 과연 옳은 것인지 말이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우리가 무의식중이라도 잘못된 예배의 초점과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지 말이다.

23) Martin, “The Purpose and Meaning of Worship,” 140.

24) 양명호, 「참으로 예배하고 싶다」, 134.

예배를 강조하며 예배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는 교회에서 겪었던 Parish의 경험담은 실제로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이와 같은 잘못을 잘 보여준다. 그의 교회에서는 예배가 “영원한 세계를 경험하는 비밀번호”라는 확신을 갖고, “예배에 숙달되려는 노력으로 ... 모든 것을 예배에 쏟아 부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눈에 보이지 않게 천천히 스포트라이트의 초점이 예수님을 벗어나기 시작”했고, 그리스도께만 헌신하고 있던 마음이 “점점 예배를 위한 공연 내용을 숙달하기 위해 ... 더 열심히 노력하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결국 교회는 “예배야말로 예수님께로 나가는 열쇠라고 하는 거짓 신학”으로 인해 문을 닫아야 하는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²⁵⁾

이런 문제는 예배 자체뿐 아니라 예배음악의 경우에도 종종 발생한다. Segler는 “수단의 사용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기 전까지만 정당한 것”²⁶⁾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처럼 예배나 음악이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잘못 추구되는 이유에는 하나님의 만족이 아닌 나의 만족, 그리고 다른 예배자들의 만족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깔려 있는 경우가 많다. 예배 참석을 통해 하나님께, 또는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 하거나, 스스로 훌륭한 신앙의 소유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과시하려는 잠재의식이 예배 본연의 목적을 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Parish는 이것을 가리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영’을 따르는 것이라고 지적한다.²⁷⁾ 우리는 예배교육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깊은 내면을 성찰하게 하고 올바른 예배의 동기와 목적을 갖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25) Fawn Parish, 「올인 예수」, 채수범 역 (서울: 요단출판사, 2008), 68-71, 75-7.

26) Segler, *A Theology of Church and Ministry*, 204.

27) Parish, 「올인 예수」, 76.

2) 만족스런 느낌을 목적으로 하는 문제

Martin은 오늘날의 예배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 중 하나가 좋은 예배의 기준을 오직 느낌에 근거해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보았다.²⁸⁾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지(知), 정(情), 의(意)를 모두 동원하여 전심으로 드리는 것으로, 정서적 측면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예배의 감격이 살아 있는 교회’와 같은 표현에서 지향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에서 적절한 감흥과 감동의 느낌을 경험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균형을 잃을 정도로 감정에 치우친 예배는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개인적으로 만족한 느낌을 얻으려는 데 예배의 주된 목적을 두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배는 정서적인 만족이든 영적인 만족이든, 우리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예배에서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느낌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것이다. 김형락은 예배가 “하나님의 현현(顯現)을 경험하고 그 경험에 응답하는 사건”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현현은 성경 봉독, 설교, 성만찬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고 예배자는 그것을 ‘느끼며’ 기도와 봉헌, 찬송을 통해 응답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그는 또한 하나님의 현현을 하나님의 계시와 같은 의미로 말하면서, 예배자가 그것을 ‘느껴야 하는 것’으로 강조한다.²⁹⁾ 그런데 그도 인정하고 있듯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규정할 수는 없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³⁰⁾ 그럼에도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런 느낌을 만들

28) Martin, “The Purpose and Meaning of Worship,” 139.

29) 김형락, “온라인 시대와 기독교 예배,” 『기독교사상』, 2020년 9월, 31-4.

30) Ibid., 34.

어 내거나 경험해보려고 매달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잘못된 태도이다. Parish는 그런 분위기에 치우쳐 있던 경험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였다. 그것은 탐욕적인 마음이었다. 우리는 임재하심을 좀 더 누리려는 심각한 중독에 빠져 있었다. 우리가 어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손으로 만지듯이 가깝게 느꼈다면, 다음번에는 그보다 더 친밀하게 느껴야 했다.”³¹⁾

성인들의 예배교육에 있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예배의 문제점을 인식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성숙하고 건강한 정서를 가지고 예배에 임하도록 가르쳐야 하며, 잘못된 열광주의나 감상주의에 빠지지 않게 인도해야 할 것이다. 양명호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처럼, 어디에나 계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며 예배에 임하는 자세를 갖추도록 가르쳐야 한다: “...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임재 안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예배하는 것이 옳다. 임재가 눈이나 느낌으로 확인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다는 확신 말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예배는 우리만의 종교 행위에 불과하게 된다.”³²⁾

3) 축복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문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하나님을 위한 ‘희생’(sacrifice)이었고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바치는 행위였다. 참된 예배는 예배자로부터 최상의 것을 요구하는 일이다.³³⁾ 그런데 우리의 일반적 성향은 예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31) Parish, 「올인 예수」, 74.

32) 양명호, 「보다 예배다운 예배를 꿈꾸다」 (서울: 생명의말씀사, 2020), 39.

무언가를 받으려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무속적 영향이 기독교 예배에 영향을 끼친 결과, “이 땅에서의 축복을 강조하는 신학적 성향”이 강하게 자리 잡은 것으로 이광희는 진단한다. 그런 신앙의 풍토는 “기독교 [교회]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라기보다 개개인의 축복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킨 오점을 남겼다.”는 것이다.³⁴⁾ Jenson과 Stevens는 오늘날의 문화적 특성의 영향도 있다고 보았다. 원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우리의 영적 생활, 특히 예배 속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침투한 듯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상당히 많은 수의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공중예배의 목적을 오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³⁵⁾

양명호는 무엇을 얻고자 하는 예배는 수단이 되어버리는 것이며 “이미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라고 한다.³⁶⁾ 정확히 말하자면, 예배는 하나의 수단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하며 결코 인간의 유익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배 본연의 올바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양명호가 강조하는 것은 예배가 ‘내 뜻’이나 ‘교회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비록 그것이 전도라든지 교회성장과 같이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일지라도 그렇다는 말이다.³⁷⁾ 따라서 우리는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께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가르칠 필요가

33) Martin, “The Purpose and Meaning of Worship,” 141.

34) 이광희, “예배학적 관점에서 본 예배 현황에 관한 비판적 고찰,” 『평택대학교 논문집』, 17집 (2003): 8, 오태균, “디지털 환경 속의 예배 갱신과 본질 회복에 관한 고찰: 개혁신학 관점에서,” 『기독교교육정보』, 23집 (2009. 8.): 51에서 재인용.

35) Jenson and Stevens, 『생동하는 교회 성장』, 43-6.

36) 양명호, 『참으로 예배하고 싶다』, 140.

37) Ibid., 143-4.

있다. 물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우리는 좋은 것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가르쳐야 할 예배자의 올바른 자세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예배는 무엇을 요청(Request)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응답(Respond)하는 것이다. 은혜를 얻기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응답하며 예배하는 것이다.”³⁸⁾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것’에 집착하여 그것이 예배하는 주된 이유, 때로는 유일한 이유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박해정은 한국교회의 예배는 설교 중심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진단한다. “예배의 모든 순서가 마치 설교를 위해서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며 “설교와 예배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³⁹⁾ 최근에 한 선교단체의 집회에 참석한 교회 신도의 다음과 같은 표현 속에서 이런 인식을 잘 볼 수 있다: “한 3천 명씩 모여요. 커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전도하고 한마디로 집회예요. 예배는 밤까지 들어요.”⁴⁰⁾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행위라는 본질 외에도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대화라는 쌍방향적 사건으로 볼 수 있다면, 설교가 하나님의 계시와 현현의 통로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오직 설교를 들으러, 또한 그것을 통해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고 예배에 나아가는 자세는 지양해야 한다.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 설교는 결코 예배의 중심이 아니다. 설교자는 예배자를 설교를 들으러 오는

38) Ibid., 140.

39) 박해정, “2019 한국교회 예배를 말하다,” 『신학과 세계』, 95호 (2019. 3.): 189, 192.

40) “열방센터에 수천 명.. ‘코로나’ 빌 게이츠가 퍼뜨렸다고?” DAUM 뉴스 [온라인 자료] https://news.v.daum.net/v/20210108203411878?x_trkm=t, 2021년 1월 8일 접속.

자로 여기지 말아야 하고, 예배자도 스스로를 설교를 듣기 위해 오는 자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설교자도, 예배자도 모두 예배하러 오는 사람이다.”⁴¹⁾

본 연구자는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찬양, 사랑, 감사, 회개, 헌신으로 구분하여 가르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 드림의 행위는 주로 언어나 음악, 몸동작, 물질 등의 가시적인 수단으로 표현하는 것이지만 침묵 속에서 내면의 표현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회개와 헌신은 죄에 대한 참회와 봉사의 다짐을 표현하는 것으로, 실제로는 예배 시간 이후의 삶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런 드림의 표현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성경이나 다른 여러 자료와 방법을 활용하여 실천하게 해야 한다. 그리하여 기계적이고 습관적인 표현으로 무의미하게 하지 않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마음을 담아 표현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좋다.⁴²⁾

4. 예배의 방법에 대한 교육

예배의 방법을 고려할 때는 성경적 원리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상황과 필요에 적합한 것들을 지혜롭게 선택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따라야 할 예배의 순서를 정하거나 방법을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하지 않으신다.”⁴³⁾ 그보다는 예배자로서 갖춰야 할 자세에 관한 원리를 말씀하신다.

41) 양명호, 「보다 예배다운 예배를 꿈꾸다」, 22.

42) 이런 교육에 도움이 되는 자료의 하나로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Jack R. Taylor,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석철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85).

43) 양명호, 「참으로 예배하고 싶다」, 10.

예배에 관한 대표적인 성경적 원리는 다음의 두 구절에 나타나 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 4:23-24);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롬 12:1) 여기에서는 먼저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1) 영적인 행위로서의 예배하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의 예배’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 분명한 것은 이 말씀으로 인해 구약시대의 “물질적인 예배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코이노니아”⁴⁴⁾로서의 새로운 예배 원리가 세워졌다는 사실이다. 이는 “물질 중심적인 희생의식보다는 진정한 마음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세우신 기준으로, “예배의 역사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고⁴⁵⁾ “지금까지 그리스도교의 참 예배의 표준과 모범으로 여겨져 왔다.”⁴⁶⁾ 이 원리가 규정하고 있는 것은 예배의 본질이 물리적 차원을 초월하는 영적인 행위라는 점이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의 좋은 방법을 모색하고 교육할 때 항상 이 원리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44) Ronald B. Allen, *The Wonder of Worship* (Nashville: Word Pub., 2001), 92, 김세광, “차세대 예배를 위한 예배의 다양성(diversity)과 통일성(unity)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62호 (2018): 12에서 재인용.

45) R. Alan Culpepper, “요한복음 4:23: 역사, 예배,” 『디사이플 주석 성경』, 번역위원회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2), 1322.

46) 김세광, “차세대 예배,” 12.

물질적 및 물리적 요소의 영향은 우리의 예배 생활에 크게 작용한다. 즉, 예배의 장소와 형식, 그리고 시간 등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예배의 본질은 이런 차원에 있지 않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도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물리적인 공간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예배에서 비본질적인 차원의 문제에 머물러 있거나 얽매어 있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실로 오늘날 예배 장소나 예배음악을 놓고 벌이는 ‘예배 전쟁’은 “모두 다 예배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대립에 불과하다.”⁴⁷⁾ 예배의 장소 문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적 예배에서 본질적인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요 4:21)는 말씀이 그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어떤 장소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집착한 나머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절대화하고 이상화하는 경우가 많다. 신약시대에 있었던 그런 사례들에서 사역자들이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하여 바로잡아 주었던 다음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행 7:48);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행 17:24).

예배의 장소나 시간은 개인 예배라면 문제 될 것이 없지만 교회적 차원의 회중 예배에서는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특정한 장소와 시간이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예배를 받으시는 데 더 좋다거나 절대적이라는 것은 성경적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그런 주장과 실천이 우리 교계에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컨대, 권기현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47) 양명호, 「참으로 예배하고 싶다」, 193.

“...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에서의 예배가 필수적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다른 시각이나 장소에서 TV 생중계 예배나 녹화된 예배를 시청하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⁴⁸⁾ 그런데 이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6. 지금 복음 시대에서, 기도나 기타의 다른 종교적인 예배행위는 그것이 시행되는 장소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장소를 향하여 드릴 필요가 없으며, 그 장소 여하에 따라서 예배행위가 더 잘 열납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나,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각 가정에서 매일, 그리고 은밀한 중에 개별적으로 드릴 수도 있고, 더욱 엄숙하게 공적인 모임들에서 드릴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이나 섭리에 의하여 기도나 예배를 드리도록 요구하신 때에, 경솔하게 행하거나 고의적으로 소홀히 하거나 저버려서는 안 된다. (제21장 “예배와 안식일”)

최근에는 코로나바이러스-19 팬데믹(pandemic) 상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교회의 ‘현장 예배’가 제한되어 그 대신 ‘비대면 예배’가 드러지고 있다. 국가의 위기 대응적 차원이나 종교와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다룰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예배의 본질이라는 관점에서 보려고 한다. 비대면 예배란 온라인 예배라는 말로도 불리는데 이러한 방식에 대해 찬반 대립이 첨예하다. 반대하는 입장으로는 “온라인 예배는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오히려 가나안 교인을 만들어내는 일에 방송 선교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⁴⁹⁾는 의견도 있다. 반면에 박해정은 온라인에 예배에 대해 “... 교회에서 드리는 현장 예배의 경험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제한적인 예배 방식”⁵⁰⁾이라고 평가하

48) 권기현, 「예배 중에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 (경산: 도서출판 R&F, 2019), 165.

49) 「한국기독교신문」, 2020년 12월 17일, 1면.

면서도 그것의 당위성을 주장한다. 그 근거로는 온라인 예배도 엄연한 예배이며, 이를 통해 교회가 ‘레이투르기아’(leiturgia, 섬김과 일)로서의 예배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들었다. 또한 이 방식의 예배를 통해서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며, 예배는 이제까지 사회 변화에 대응하며 변화해 왔다고 말한다.⁵¹⁾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야 할 것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예배드리는 것이며(행 9:31), 교회당만이 예배 ‘현장’이 아니라 어느 곳이나 계시는(시 139:8)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은 우리가 ‘신을 벗어야 할’ 거룩한 예배 ‘현장’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온라인 예배는 얼마든지 의미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다. 물론 공동체성의 유지와 발전이라는 점에서는 온라인 예배가 제한점이 있지만, 영적 차원의 하나님 예배라는 점에서는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 Berger가 성찰했듯이, “교회가 수행하는 예배 실행들의 궁극적 의미는 예배 그 너머에” 있는 것으로,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든지 하나님과 신실한 만남 속에 있기 때문이다.”⁵²⁾

온라인 예배는 최근에 중요한 이슈가 되었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이미 우리 곁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고 앞으로 계속 더 보편화될 것이다. 온라인 방식이 아니더라도, 교회당에서의 주일예배 이외의 다양한 예배를 많은 교회가 이미 시행하고 있다. 구성원들 중에 그런 예배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시도는 상황적인 필요 때문에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가 보전해야 할 복음주의적 교회의 중요한 전통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주님의 날에 온 회

50) 박해정,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온라인 예배에 관한 고찰,” 『신학과 세계』, 96호 (2020. 6.): 193.

51) Ibid., 193-8.

52) Berger, 「예배, 디지털 세상을 만나다」, 302.

중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다. 또한, 사람은 원래 직접적인 대면으로 접촉하면서 살아가야 사람답게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참다운 공동체로서의 교회 예배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한 것은 이 모든 현실 속에서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본질을 잃지 않는 일이다. “패러다임이 계속 바뀌는 복잡한 미로 같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 원리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⁵³⁾

2)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기

Allen은 ‘영과 진리’의 예배에 대한 하나의 가능한 해석으로, ‘마음으로부터’(from the heart), ‘진정성 있게’(with sincerity) 예배하는 것이라고 보았다.⁵⁴⁾ Hustad는 ‘진리’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복음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설명했다.⁵⁵⁾ 이런 해석들을 종합해 볼 때, ‘영과 진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진리 안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하신 진리를 올바르게 깨닫고 순종하며, 마음으로부터 드리는 진정한 공경인 것이다. 따라서 예배교육에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으로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가르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성경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로 대하며 항상 그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세를 갖도록 도전해야 한다. 아울러 예

53) Donald P. Hustad, *True Worship: Reclaiming the Wonder and Majesty* (Carol Stream, Illinois: Hope Publishing Company, 1998), 33.

54) Allen, *The Wonder of Worship*, 92-3, 김세광, “차세대 예배,” 12에서 재인용.

55) Hustad, *True Worship*, 37.

배할 때마다 정결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훈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모든 것을 담아내고 ‘실행’하는 것은 각 사람의 영이요 그의 마음이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영의 상태와 자세는 예배에서, 그리고 신앙과 삶의 전 여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Culpepper도 요한복음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건물이 예배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예배가 그 지리적 위치에 제한받는 것도 아니다. 예배의 유일한 장애요인은 사람의 영의 태도이다.”⁵⁶⁾ 사실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그 중심, 곧 마음을 보시는 분이다(삼상 16:7). 예배자에게서 보시는 것도 역시 진실한 마음이다.

본 연구자는 예배를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을 표하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훈련도 예배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마음훈련은 지, 정, 의를 아우르는 전체적인 정신세계를 포함하는 것이다.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며 논리적으로 신앙을 키워가는 지성을 개발하는 것이다. 또한, 자기성찰과 회개를 통해 늘 정결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며 마음의 상처를 잘 관리하여 건강한 정서를 갖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적 가치관을 내면화하여 일관성 있게 실천하는 의지력을 꾸준히 길러 나가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분별력 있는 마음으로 말하고, 노래하며, 보고, 듣고, 느끼며, 생각하고, 결단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하며 살아가도록 돕는 훈련이다.

56) Culpepper, “요한복음 4:19-24, 예배, 성스러운 건물,” 「디사이플 주석 성경」, 1322.

III. 성인 예배교육의 방법

1. 주요 교육목표

교육목표는 교육 대상자들의 필요와 특성 및 상황이나, 주어진 교육시간과 대상자들의 규모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매번의 교육마다 다루는 내용에 따라 정해야 할 목표(개개의 '수업' 목표)들과 더 상위 단위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 즉, '단원별' 목표 또는 전체 교육과정의 목표 등이 다양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 제공자의 관점에서 어떤 주제를 중요하게 포함시켜 다룰 것인지에 따라 교육목표는 차이가 있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본 연구자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다룬 주제들을 중심으로 교육목표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물론 이 주제들 외에도 얼마든지 예배교육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은 많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예배교육의 목표는 크게 두 영역으로 나뉘어서 올바른 개념이해와 일관성 있는 실천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 둘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데, 실천이 궁극적인 목표이지만 그것은 반드시 올바른 이해의 토대 위에서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예배에 관한 올바른 개념이해를 통해 성경적인 예배관과 문화적으로 적절한 예배 방법론을 정립하여 각 예배자에게 내면화되고 생활화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세워져 가는 개인 예배자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신앙공동체 차원의 공중예배가 올바르게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예배교육의 지향점이다. 이 모든 노력은 궁극적인 문제 즉,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일'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예배교육의 목표도 마찬가지이다.

예배교육의 일차적인 교육목표는 학습자가 성경적인 예배의 원리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룬 내용에 국한해서 주요 교육목표를 학습자의 관점에서 성취해야 할 형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신자 개인과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관점에서 예배의 정의를 내릴 수 있고, 예배가 근본적으로 개인적이며 내면적인 행위라는 것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예배의 목적에서 벗어나, 잘못된 것을 추구하는 세 가지 경우(예배 자체, 만족스런 느낌, 축복받음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성경적인 예배방법의 본질은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태도의 문제로 ‘영과 진리의 예배’라는 것과, 그 원리의 두 가지 주요 의미(영적인 행위로서의 예배와 진실한 마음의 예배)를 설명할 수 있다. (5) 성경적인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그 의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임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이해를 목표로 하여 예배교육을 시행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예배 실천으로 학습의 전이가 이루어져 성경적인 원리에 부합하는 예배자의 삶의 양식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각 예배자가 평생에 걸쳐 계속 배우고 노력해야 할 과정이다. 다만 교회가 행하는 일정 기간의 교육을 통해서도 구체적인 실천훈련이 중요하게 포함돼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예배교육이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은 개인 예배가 생활화되도록 하는 것과 공중예배 시간에 능동적이고 의미 있는 참여를 하는 것, 그리고 모든 예배의 순간에 진실한 마음의 표현을 하는 것이다.

2. 주요 교육방식

1) 전체 회중교육

예배교육의 방식을 분류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교육 대상자의 규모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어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회중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는 교육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규예배 시간의 설교를 통해서 교육하는 방법과 예배 시간 이외의 별도의 시간에 실시하는 특별강좌, 그리고 단기간의 수련회(캠프)를 통한 집중교육이 이에 속한다. 교육의 기간이나 회수는 예배에 관한 교육 주제를 어느 정도의 범위로 설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한 번의 교육으로 충분할 수는 없고 적어도 네댓 개의 주제는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룬 예배교육의 내용은 네 개의 주제에 관한 것이었다. 즉, 기본적으로 예배의 중요성, 예배의 의미, 예배의 목적, 예배의 방법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전체 회중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방식은 주요 주제들에 한 회분의 시간을 배정하여 연속적으로 교육하면 될 것이다. 설교의 경우에는 소위 ‘시리즈 설교’의 형식으로 하는 것이다. 전체 시리즈를 매주 계속 연이어서 다룰 수도 있고 간격을 두고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매달 첫 주마다 또는 마지막 주마다 ‘예배 시리즈’ 설교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주일 아침 예배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시간대의 예배를 활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주일 오후나 저녁 예배, 또는 수요일 예배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별도의 시간을 이용한 특강 방식의 교육도 교회의 기존 프로그램 시간에 실시하거나 새로운 시간을 확보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정규예배의 설교

시간이 아니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몇 주에 걸쳐서 연속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간격을 두고 실시할 수 있다. 또는 하루 동안에 긴 시간을 확보해서, 예컨대, 토요일 하루 종일, 집중적으로 특강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집중교육을 별도의 장소에서 숙식과 다른 활동들을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이 캠프가 되는 것이다. 본 연구자가 실시해왔던 수련회 방식의 교육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한 교회의 성인들 전체를 위한 수양회에서 “예배의 삶”이라는 주제로 2박 3일간 시가지에서 떨어져 있는 교외의 캠프장에서 실시했던 것으로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 오후까지 진행됐던 캠프였다. 특강은 시작하는 날에 1회, 둘째 날에 3회(오전, 오후, 저녁), 그리고 마지막 날에 2회(오전)로 총 여섯 번 실시했다. 각 주제는 다음과 같다: 행복을 위하여(예배의 당위), 섬기는 예를 행하고(예배의 의미), 너는 나 외에는(예배의 위치), 산 제사로 드리라(예배의 본질), 신령과 진정으로(예배의 방법), 나를 보내소서(예배의 모델). 마지막 폐회 예배 시간에는 배운 것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모두가 참여하여 드리는 예배를 함께 준비해서 행하였다.

정규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교육하는 것은 아무래도 설교라는 일방적 특성 때문에 주로 내용을 설명해서 이해와 설득, 교훈과 권면을 도모하는 것이다. 하지만 교회당 중심의 회중 예배가 아닌 별도의 시간이나 장소에서 실시하는 특강은 질의응답과 토의, 그리고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을 구사해서 학습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성인들의 경우에 이런 방식의 참여적 교육이 학습효과를 높이는 데 좋다. 특히 예배 생활의 실천을 중요한 목표로 하는 예배교육에서는 이 같은 방식의 교육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2) 소그룹 교육

두 번째의 교육방식은 소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상호 의사소통과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규모로 학습자 집단을 구성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물론 남녀선교회 등의 기존에 편성된 소그룹 조직이 있다면 그것을 활용하여 일정 기간 동안 예배를 주제로 한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 번에 하나의 소그룹을 운영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소그룹을 동시에 운영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학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준비된 리더를 중심으로 소그룹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 소그룹 운영 방식은 교회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할 수 있으나, 일정한 학습 기간을 정해 놓고, 정규모임을 최소 매주 1회씩 갖되 정해진 학습주제를 중심으로 공동학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회에서 소그룹 학습을 위한 지침서나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해 줄 수도 있을 것이고, 시중에 나와 있는 적절한 자료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다. 소그룹 모임에서는 매주 미리 정해진 발표자의 발제와 구성원들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유의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개인교육

세 번째의 개인교육 방식에는 개인을 대상으로 직접 일대일로 가르치는 개인지도와, 자기주도 학습을 하도록 도와주는 방식이 있다. 이는 개인의 특성과 상황 및 필요에 맞춰 학습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이 역시 일정한 기간과 학습주제 및 학습방법 등을 교수자와 학습자가 상의해 정하면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의 다양한 방식의 예배교육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격을 갖춘 교육책임자들을 내부나 외부에서 물색하여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교육계획에 대한 홍보를 잘해서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서 행정적인 관리를 면밀하게 하여 순조로운 진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 교육을 진행하면서 참여자들의 반응을 잘 살피면서 필요한 조정을 해야 하며, 교육이 끝난 후에는 성과에 대한 나눔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 활용 가능한 테크놀로지 기술과 기기를 통해 직접대면이 아닌 원격교육 방식도 적절히 포함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리고 예배교육과 병행하여 그에 부합되는 실제 예배의 갱신과 구체적 실천 방안을 교회 차원에서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나가는 말: 예배자의 삶을 위한 예배교육

성경적 예배 원리에서 중요한 점은 ‘영과 진리의 예배’이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며 오히려 더 중요한 점은 ‘영과 진리의 예배자’이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요 4:23)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을 보여준다. 실로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은 예배나 예배방식이 아니라 사람, 예배자이다.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아름답고 정교한 예배의식을 드러서가 아닐 것이다.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와의 교제를 가장 좋아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의례(ritual)가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relationship)이다. 우리의 예배교육에서도 주된 관심은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여야 한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가 사람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이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사람은 곧 삶이기 때문이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은 “모든 사람의 본분”(전 12:13)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그래서 경외의 한 방법인 경배(예배)가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 경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일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다. 그런데 경배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분을 경외하는 방법이다.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또 하나의 예배 원리는 바로 그것이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이다(롬 12:1).

김세광은 이 구절에서 ‘영적 예배’의 의미는 ‘합당한 예배’라고 했는데, 영어성경 한 번역(KJV)에서는 ‘reasonable service’라고 표현하고 있어 ‘사리에 맞는, 타당한 예배’라는 뜻으로 설명했다.⁵⁷⁾ 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에게 합당하고 마땅한 삶의 행위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의미인 것이다. 그런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로서 바울이 롬 12장 1절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선한 실천들을 말한다. 사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인데,⁵⁸⁾ 이는 ‘가장 큰 계명’(마 22:34-40)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아우르는 것이다. 예배드리는 일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간접적인 하나님 사랑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랑의 실천을 모두 진실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

57) 김세광, “차세대 예배,” 14.

58) Hustad, *True Worship*, 35.

다면 예배자로서, 그리고 예배교육자로서, 우리의 관심도 하나님의 관심을 따라 예배를 넘어서 예배 이후의 삶으로 넓혀져야 할 것이다. 경배를 넘어 경외로, 의례를 넘어 관계로 우리의 관심이 넓혀져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참고자료

1. 단행본

- 강용원. 「기독교교육의 과제와 전망」. 서울: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04.
- 권기현. 「예배 중에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 경산: 도서출판 R&F, 2019.
- 송인규. 「예배당 중심의 기독교를 탈피하라」.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1.
- 양명호. 「보다 예배다운 예배를 꿈꾸다」. 서울: 생명의말씀사, 2020.
- _____. 「참으로 예배하고 싶다」.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3.
- 온누리 예배사역본부. 「예배학교」. 서울: 두란노서원, 2014.
- Allen, Ronald B. *The Wonder of Worship*. Nashville: Word Pub., 2001.
- Berger, Teresa. 「예배, 디지털 세상을 만나다」. 안선희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20.
- Culpepper, R. Alan. 「요한복음」 「디사이플 주석 성경」, 번역위원회. 서울: 요단출판사, 1992.
- Gaddy, C. Welton. *The Gift of Worship*. Nashville: Broadman Press, 1992.
- Hustad, Donald P. *True Worship: Reclaiming the Wonder and Majesty*. Carol Stream, Illinois: Hope Publishing Company, 1998.
- Jenson, Ron, and Jim Stevens. 「생동하는 교회 성장」. 금병달 역. 서울: 순출판사, 1991.
- Macchia, Stephen A.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10가지 비결」. 김일우 역. 서울: 아가페출판사, 2000.
- Martin, Ralph P. “The Purpose and Meaning of Worship,” 139–52. *Leadership Handbook of Practical Theology, Vol. 1: Word & Worship*, ed. James D. Berkely.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 House, 1992.

92 복음과 실천(제67집, 2021년 봄)

Parish, Fawn. 「올인 예수」. 채수범 역. 서울: 요단출판사, 2008.

Rayburn, Robert G. 「예배학」. 김달생, 강귀봉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2.

Segler, Franklin M. *A Theology of Church and Ministry*. Nashville: Broadman Press, 1960.

Taylor, Jack R.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석철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85.

Young, J. Terry. *The Church—Alive and Growing!* Nashville: Broadman Press, 1978.

2. 정기간행물

김세광. “차세대 예배를 위한 예배의 다양성(diversity)과 통일성(unity)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62호 (2018): 7-40.

김형락. “온라인 시대와 기독교 예배.” 「기독교사상」, 2020년 9월, 30-9.

박해정. “2019 한국교회 예배를 말하다.” 「신학과 세계」, 95호 (2019. 3.): 181-215.

_____.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온라인 예배에 관한 고찰.” 「신학과 세계」, 96호 (2020. 6.): 175-216.

오태균. “디지털 환경속의 예배 갱신과 본질 회복에 관한 고찰: 개혁신학 관점에서.” 「기독교교육정보」, 23집 (2009. 8.): 37-67.

이광희. “예배학적 관점에서 본 예배 현황에 관한 비판적 고찰.” 「평택대학교 논문집」, 17집 (2003): 3-21.